

(주)경농 대구공장

# ‘설비자동화 · 핵심인재화’ 통해 ‘최고 · 일류’ 제품만 공급

최고 · 일류 향한 반세기의 연륜, 설비자동화 · 혁신활동으로 화룡점정  
지역공장의 모델케이스, 고객 · 공무원 · 주민 · 학생 등 방문 줄이어 보람

**농** 약의 탄생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며 의약보다 더 과학적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세간의 시각과 정서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다. 문명의 이기는 대부분 편리하기 그지없어서 칭송 또는 칭사 대접을 받는 것이 일상이지만, 유독 농약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과 작은 우려사이에서 갈등하며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입장으로 일관하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약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신년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첫 번째의 장(場). 각종 지원 인프라 여건이 우수한 대구성서산업단지에 위치, 반세기 동안 최고와 일류만을 고집하며 불면불휴 하는 (주)경농 대구공장(생산본부장 金一龍)을 찾았다.

## 전 직원 핵심인재화 통해 최고 · 일류 지향

“현재 국내에서는 최고의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된 최신 생산설비와 첨단 공정관리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구성원 전원이 핵심인재로 정예화 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품질하나 만큼은 최고 · 일류가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다짐으로 정성과 혼을 담아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경농 대구공장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金생산본부장의 사자후(獅子吼)다. 그러면서 “제품 제조공정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의 실현을 위한 기법은 각 회사마다 노하우일 수 있는 만큼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여백을 둔다.

1957년 경북농약공사로 출발, 어느새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 (주)경농의 역사는 그 이력만큼이나 빛을 발한다. 1972년 국내 최초로 수도용 제초제 원제합성에 성공한 것을 비롯하



1. 유액제라인의 로타리 필러(filler)      2. 수화제 라인의 실링(sealing) 장면  
3. 바코드를 인식, 제품별 자동 적재가 가능한 로봇 파레타이저(Palletizer)

여 84년에는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되어 농수산부장관상을, 86년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97년에 교통의 요충지인 현재의 성서산업단지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였다. 99년에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경영혁신대상 제조부문 우수상 수상, 2001년 ISO 9001인증, 2002년 ISO 14001 및 OHSAS 18001까지 농약업계 최초로 3개 부문에 대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이루어 냈다.

타 공장과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金本 부장은 “현재상황 그대로인 최고와 일류만을 추구하는 정신,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 직원의 핵심 인재화, 국내 최고의 제안·개선실적을 보유한 수준 높은 공장 혁신활동 전개, 글로벌 마인드 견지 및 국제 경쟁력 배양을 위한 전 직원의 해외연수 등 차별화 요소가 적지 않다”고 술회한다.

(주)경농 대구공장은 각각 3개동의 공장동과

원부원료 창고 및 2개동의 제품창고, 동력동 및 사무동 각각 1개동 등 부지면적만도 1만8천여평에 이르며 모두 68명의 숙련 직원이 최고·일류 제품 생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 시설 완벽·환경민원 Zero 등 한계 극복

9개 제형 15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주)경농 대구공장은 농약의 전 제형 생산이 가능하며 배합부터 포장단계까지 생산설비의 첨단 자동화 및 전 공정의 컴퓨터 제어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도 손색이 없다. 金本 부장은 이에 대해 “농약시장의 잠재성 부족으로 당시만 해도 시설투자를 꺼려했던 측면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지 않은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며 경영진의 선견지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 제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

해서는 환경설비 및 환경관리 측면을 예로 들며 일축한다. 기본인 집진기를 비롯, 인근지역에 환경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Primary 및 HEFA Filter, 활성탄 흡착탑 등 4단계 처리를 기본으로 완벽한 환경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조업환경에서만이 좋은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농약산업의 한계극복을 위한 (주)경농의 전사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종업원의 안전 및 보건관점과 공정 및 품질관리 관점, 노후화된 설비의 보전관리 측면 등 쾌적한 조업환경의 조성과 공해물질 및 악취·소음 배출 차단, 제조제 영향 등 인접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차단을 목적으로 한 환경영향 Zero 지향으로 신공장 가동 이래 환경사고 및 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모델공장 케이스가 돼 각계의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金본부장은 끝으로 농약을 보는 소비자의 시각에 대해 “농약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라면서 “또한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출고에 이르기까지 ISO 표준에 의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극히 일부에서의 부작용이 농약 전체의 모습인 양 잘못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식전환을 당부했다. 

## 미니 인터뷰

## 金龍 생산본부장

### ■ 대규모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단 한건의 환경사고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농약공장의 한계를 극복한 것인지요?

물론입니다. 신공장 건설 당시만 해도 전 업종에 걸쳐 지역 최고수준의 공장건설이 모토였습니다. 공해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을 때 무재해·무공해 공장이 아니면 대도시 근교 일반 공단지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생산설비의 자동화와 컴퓨터 제어시스템 구축은 물론 대내외 최적 조업환경 실현을 위한 완벽한 환경설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에 관련한 농약제조가 더 이상 공해산업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며 환경관련 민원이 단 한건도 제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의 모델공장으로서 고객 및 공무원, 주민, 학생, 외국인 등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제조시설 및 환경, 약제 등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점보체 등 생력형 제형 및 다기능 복제농약, 서방형 입제 등 약효지속형 농약 생산 등 제형 및 약제의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립체 조각기술 발달 및 고성능 첨단장비의 산적용, 설비의 자동화, 공정제어의 컴퓨터화, 고객 및 시대요구에 따른 신제형 설비 능력 강구, 다품종 소량생산 대응능력 강구 및 포장공정의 자동화 수준 제고 등 제조시설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고조, 제도 및 법규정의 강화, 처리기술 진보 및 투자와 예산의 증가 등 환경설비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올해 주요 계획은?

우선 전사적생산관리(TPM) 위주의 공장 혁신활동을 더욱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경농에 맞는 새로운 실천모델을 구축, 제2 도약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 공장직원의 해외연수를 크게 확대,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할 계획이며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제조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